



Shalom, I am Sister Gemma Del Duca. From an early age I was fascinated by the Jewishness of Jesus. Perhaps because I was born in Ludwig, an area of Greensburg that housed a synagogue and neighbors who were Jews. My parents Rachel Just Del Duca,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is Del Duca, born in Italy and immigrated at age 17, were devout Catholics. My two sisters Bertha, later Sister Bernadette, Bonnie, my brother Francis, and I attended St. Benedict School. In Greensburg High School I began to meet people my age who were Protestant, Jewish, African American; some became my good friends. Influenced, especially by my first grade teacher, Sister Rita Catherine Col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50, the Holy Year.

Our group doubled the novitiate—from 28 to 56! The early years were a challenging time—I liked to study, but there was no time between charges, prayer, and trying to stay on schedule. In July 1956 our group made final vows. One day during that hot summer, I was called into Mother Claudia Glenn’s office. She smiled, asked me how I was and then announced that she and the Council were sending me to Rome, Italy, for studies. I was stunned, I felt so pained to be leaving family, community for three years. Yet, what a gift!

Attending the Pontifical Institute Regina Mundi, I grew spiritually, theologically. The Church’s universality-- Europe, Africa, India, Asia, Latin America, were living people around me, my sisters, my brothers. In the spring of 1959, I sailed with the Franciscans to the “Holy Land,” surrounded by Jewish people, but on the fringe. Still, I was getting closer to the Source.

Returning to the US in the fall of 1959, I felt strange, as if I did not belong, with a degree and an education that was unwanted. “Finish the undergraduate degree” I was told; by spring of 1962 I was accepted for graduate studies: four years in Albuquerque,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living with the Cincinnati Charities. I returned in 1966 to teach in the history department of Seton Hill College. It was a tumultuous time, civil rights, Vietnam War,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the

midst of this radically changing world, Isaac Jacob, O.S.B., came with a message inspired by Vatican II, of hope, renewal, return to the sources through Jesus, through Judaism as experienced in the new State of Israel. In 1975 the year of the canonization of Elizabeth Seton I left for Israel and the search that still continues.

The new millennium had deep significance for me--it marked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my life as a Sister of Charity. We celebrated at Seton Hill University with a special event at the National Catholic Center for Holocaust Education. I had spent 2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25 years in Israel. With the dedicated work of Sister Mary Noel Kernan and Sister Lois Sculco the Center developed at Seton Hill and nationally, while I worked on having educators come to Jerusalem, to the International School for Holocaust Studies at Yad Vashem. Now in the 21<sup>st</sup> year of the millennium I volunteer with our Holocaust Center twice a week as “the ambassador at large.” And as a resident of Caritas Christi, I cherish praying the Psalms in our Chapel, longing for the Lord who “makes his dwelling in the praises of Israel.” Ps. 22:3





살롬! 평화를 빕니다! 저는 젬마 델 듀카 Gemma Del Duca 수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예수님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크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난 곳이 그린스버그 지역 중에 유대교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루드위그 Ludwig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어머니(레이첼 저스트 델 듀카 Rachel J. Del Duca)는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프란시스 델 듀카 Francis Del Duca)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7살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요. 저의 형제는 두 자매 버사Berth (버나데트Bernadette 수녀)와 보니 Bonnie, 남동생 프란시스 Francis가 있어요. 우리 사 남매는 모두 성 베네딕토 학교 St. Benedict School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스버그 고등학교 Greensburg High School에 다니면서 제 또래의 개신교 신자, 유대인, 흑인 친구들을 알기 시작했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특히 1학년 때 선생님이셨던 리타 캐서린 콜Rita Catherine Cole 수녀님의 영향을 받아 1950년 대희년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입회하면서 수련소는 인원이 28명에서 56명으로 두 배가 되었지요. 처음 몇 년 동안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좋아했는데 맡은 책임과 기도, 일과표를 따라가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더 클라우디아 글렌 Mother Claudia Glenn 총장 수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녀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으셨지요. 그리고는 이사회에서 저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부하도록 파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큰 은총이었어요. 교황청립 레지나 문디 인스티튜트Pontifical Institute Regina Mundi 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내 형제자매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보편성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59년 봄, 저는 프란치스코회 회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대인들로 둘러싸인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저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주변을 걸돌고 있었을 뿐이었고 아직 그 근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었지요.

1959년 가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학위와 공부 때문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고 학부 과정을 마쳐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1962년에 앨버커키 Albuquerque에 있는 뉴멕시코 대학교 University of New Mexico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신사 내티 사랑의 수녀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1966년 다시 돌아와 씨튼힐 대학 역사학과에서 가르쳤지요. 그 당시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여성 해방 운동으로 혼돈의 시기였어요. 이렇게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베네딕토회의 아이작 제이콥Isaac Jacob 신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과 쇄신, 예수를 통한 근원으로의 회귀,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유대교를 통한 회귀의



메시지를 들고나왔습니다. 저는 엘리사벳 씨튼이 시성된 1975년에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고 아직도 그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해는 수도생활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저희는 씨튼 힐 대학 전국 가톨릭 홀로코스트 교육 센터National Catholic Center for Holocaust Education 특별 행사로 경축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수도생활 50년 중 25년은 미국에서, 25년은 이스라엘에서 보냈지요. 메리 노엘 커넨 Mary Noel Kernan 수녀님과 로이스 스컬코Lois Sculco 수녀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센터는 씨튼 힐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전했고, 저는 교사들이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Yad Vashem (역주: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국립 기념관)에 있는 국제 홀로코스트 연구 학교International School for Holocaust Studies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일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고 2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씨튼 힐의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특별대사"로서 일주일에 두 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리타스 크리스티의 우리 성당에서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시는 주님(시편 22:4)"을 간절히 바라며 시편 기도를 소중히 바치고 있습니다.

